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전략 분석: 군사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박창희**

I. 서 론

지금까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화이트(A. Whiting)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의 개입 원인을 “안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중국은 국제연합과 인도대사 파니카(K.M. Pannikar)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인천상륙 작전 후에는 미국에 38선을 넘지 않도록 계속 신호를 보냈으나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진을 계속하자 안보의 위협을 느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한다.¹⁾ 그러나 이러한 연

* 본 내용은 '00년도 한국 국방경영분석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임.

** 고려대학교, 육군 소령

1)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p. 129.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개입을 보는 연구로는 Melvin Gurtov & Byong-moo Hwang,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Anthony Farrar-Hockley, "A Reminiscence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in the Korean War," *The China Quarterly*, no. 98, June 1984, pp. 284-304; Russell Spurr, *Enter the Dragon: China's Undeclared War against the U.S. in Korea* (New York:

구는 중국의 개입을 “위협”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간주함으로써 모택동이 어떠한 전략적 계산을 가지고 개입하였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안보”라는 시각에서 나아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있다. 모택동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 동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보다도 “혁명적 민족주의”(revolutionary nationalism)에 있다는 것이다.²⁾ 첸 지안(Chen Jian)과 크리스텐슨(T. Christensen)은 새로 공개된 공산권 국가들의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모택동의 개입 목적이 미군에 대한 완벽한 승리에 있었으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통해 아시아의 혁명을 추구하려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문서”를 분석한 결과 나온 주장들로서 모택동의 실제 의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서들은 당의 정설이나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을 합리화하고 선전할 목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장수광(Zhang Shu Guang)은 문화적 접근(cultural approach)을 통해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을 “군사적 낭만주의”(military romanticism)로 분석한다.⁴⁾ 중국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모택동은 “인간은 무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젖어 있었으며 한국전쟁을 통해 중국이 완전히 일어섰음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모택동의 현실주의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모택동은 1로서 10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의 영역이며 실제 전술에 있어서는 10로서 1을 이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 모택동 전략의 “낭만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마치 동전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과 같이 모택동 전략의 실체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들에 근본적인 오류가 불가피한 것은 전쟁을 군사적 게임이라기 보다는 주로 정치적 또는 비군사적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분석이 갖는 한계

Newmarket, 1988); Jonathan Pollack, “The Korean War and Sino-Korean Relations,” Harry Harding & Yuan Ming, eds., *Sino-American Relations, 1945-1955: A Joint Assessment of a Critical Decade* (Wilmington, Del.: Scholarly Resources, 1989).

2)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94); Thomas J. Christensen, “Threats, Assurances, and the Last Chance for Peace: The Lessons of Mao's Korean War Telegrams,” *International Security*, no. 17, vol. 1, Summer 1992.

3) Michael H. Hunt, “Beijing and the Korean Crisis, June 1950-June 1951,”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7, no. 3, Fall 1992, p. 477.

4) Shu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Fights the Korean War*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5). 특히 pp. 9-11 참조.

5)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1, p. 237.

는 “승리가능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복안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승리의 가능성이 미약했음에도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려 하였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군사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 모택동 전략사상의 출발점은 바로 “피아 역량의 비교”이며 “승리가능성”에 대한 계산에 있다.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전부터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군사전략적 수준에서의 연구는 모택동의 한국전쟁 전략을 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치적 수준에서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기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모택동은 어떠한 군사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우선 분석한다. 첫째는 모택동 전략의 본질이다. 모택동 전략은 대표적인 약자의 전략으로서 그 본질은 군사적으로 강한 적과 결전을 회피하는데 있었다. 중국혁명전쟁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은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다. 둘째는 신생중국의 군사전략이다. 한국전쟁 이전에 나타난 모택동의 전략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전쟁 개입결정 과정과 개입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생중국의 전략 가운데 인도차이나, 대만,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 요소, 즉 모택동 전략사상과 신생중국의 군사전략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모택동의 전략적 목표를 규명하기 위한 틀/framework)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군사전략이란 전역 전략(theater strategy)을 의미한다. 즉 실행에 옮겨졌을 때 그 결과로서 영토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전략이다.⁷⁾ 물론 작전적(operational) 수준과 전술적(tactical) 수준에서도 영토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전쟁이 수행되는 전역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전쟁이 수행되는 장소는 특정 지역(province)이

6) 이와 유사하게 보어만 부부는 중국혁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비군사적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oward L. Boorman & Scott A. Boorman, "Chinese Communist Insurgent Warfare, 1935-49,"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LXXXI, no. 2, June 1966, p. 173.

7)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1987), p. 113. 러트웬에 의하면 기술적 수준의 전략은 무기의 상호작용을, 전술적 수준의 전략은 병력의 상호작용을, 그리고 작전적 수준에서의 전략은 무기와 병력을 사용하는 개념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 군사전략이라는 용어는 작전술이라는 용어와 구별된다. 후자가 개념적이라면 전자는 실제적이며 가시적이다. 예를 들어서 전격전(blitzkrieg)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작전술에 해당되지만 전격전을 사용한 히틀러의 제2차대전 전략은 영토적 변화를 수반하는 군사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Edward Luttwak, *Strategy*, p. 91.

될 수 있고 한 국가의 영토 전체가 될 수 있다. 군사전략에 의한 영토의 변화는 전쟁이 수행되는 지역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 영역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 전략의 근간은 안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안보는 단순하게 적의 진출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군사전략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첫째, 완충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미국과의 결전시 잠시 숨쉴 틈(breathing spell)을 갖기 위한 방어전략의 일환이었다. 둘째, 양면전쟁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함이었다. 대만 해방의 실패로 한반도와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는 배가되었으며, 한반도가 미국의 수중에 놓일 경우 양면전쟁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장차 이루어질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일종의 결전 무마전략이었다.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택동의 전략적 계산은 미국과의 결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모택동 전략의 본질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전 수립되었던 신생 중국의 대미전략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모택동의 전쟁 전략, 특히 미국과의 결전 회피를 위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모택동전략의 특성

1. 전략 개념: 방어와 결전의 회피

전쟁을 시작하는 강자의 전략은 결전을 통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⁸⁾ 강자는 직접적인 전략이 되었던 간접적인 전략이 되었던 결전을 통해 적의 중력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격파하여야 한다.⁹⁾ 전쟁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격하는 국가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은 시간이 감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이 변화하지 않는 반면 비용이 점차 증가하기

8)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88), pp. 55-56; John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제2장.

9)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14. 포슨은 “공격원칙(offensive doctrine)은 적의 군대를 격멸하고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이다.¹⁰⁾ 상대 국가는 동원을 통해 그들이 가진 전쟁 잠재력을 현실화 할 것이며,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양면전쟁의 가능성이 대두될 것이며, 공격하는 국가의 실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강자는 최대한 공격기세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전략을 통해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지으려 할 것이다.¹¹⁾

방어는 약자의 선택이다. “방어가 공격보다 강한 형태의 전쟁”이라는 논리는 약자가 방어를 취해야만 하는 근거가 된다.¹²⁾ 그런데 방어가 공격보다 강한 이유는 방자가 결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공격하는 국가가 당장 결전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방어하는 국가는 이 결전을 미루어야 한다.¹³⁾ 결전이 회피되면서 적의 공격기세가 둔화될 것이고 공격은 정점(culminating point)에 이르게 된다. 방자는 공자의 전투력이 감소되기를 기다렸다가 역으로 결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방어하는 약자에게 최우선의 전략은 공자가 추구하는 결전을 회피하는 것이며, 차후의 결전을 기다리는 것(waiting)이라 할 수 있다.

손자의 전략은 철저한 군사력의 계산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의 전략사상에서 나타나는 방어전략은 약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할 때에는 당연히 방어를 통해 자신을 보존하여야 하며, “모든 조건이 적군보다 못하면 적과의 교전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그것은 곧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적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델 하트(Liddell Hart)는 방어하는 국가의 전략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파비우스(Fabius)의 회피전략이나 프레드릭(Frederick)의 수세적 전략을 통해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란 결정적 전투를 회피하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적의 군사력이 더 강할 경우 국가는 전쟁의 목적을 제한하여야 하며, 만일 적과 임의로 교전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에드워드 러트웁(E. Luttwak)이 제시하는 약자의 전략은 상대적 기동(relational maneuver) 전략이다. 그는 작전적 수준에서의 전략을 소모전략(attritional strategy)과 상대적 기동전략(relational maneuver strategy)으로 구분한다.¹⁶⁾ 소모전략이란 막대한

10) Zeev Maoz, *Paradoxes of War* (Boston: Unwin Hyman, 1990), p. 145.

11) P.H. Vigor, *Soviet Blitzkrieg Theo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 17-28.

12) Jack Snyder, *The Ideology of the Offensive* (Ithaca: London, 1984), p. 22.

13)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83-84.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개념을 극성(polarity)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14) 손자, 「손자병법」, 모공편.

15) B.H. Liddell Hart, *Strategy* (London: Faber and Faber, 1967), pp. 26-29, pp. 86-93.

16) Edward N. Luttwak, *Strategy*, pp. 91-97; E. Luttwak, "Level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5, no. 3, Winter 1980/81, pp. 61-79.

산업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우세한 화력과 물량을 쏟아 붓는 전략으로서¹⁷⁾ 적의 중력의 중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상대적 기동전략은 적의 강한 지점을 회피하고 약한 지점에 대해 우세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방어전략의 측면에서 선방어는 소모전략에, 기동방어는 상대적 기동전략에 해당한다. 그런데 방어를 해야 하는 약자에게는 상대적 기동전략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모전략의 한 형태인 선방어를 택하여 전선에 일렬로 병력을 배치할 경우 방어중심은 뚫어질 것이고, 따라서 만일 적이 군사력을 한 지점에 집중하여 결전을 추구하면서 공격한다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자는 기동방어를 통해 적이 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여야 한다.¹⁸⁾

약자의 전략은 불가피하게 지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앙드레 보프르(Andre Beaufré)는 유형전력(material force)이 강한 경우 타 국가가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지만 약한 경우에는 군사적 승리보다는 적에게 부담을 지우는 지연전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⁹⁾ 미어샤이머(J. Mearsheimer)는 만일 공격하려는 국가가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모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 전쟁을 포기할 것이며 따라서 재래식 억지(conventional deterrence)가 가능하다고 한다.²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약하여 방어를 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연·소모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방자의 입장에서 결전을 회피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간을 양보하면서 결전을 지연시키는 “공간회피전략”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시 페리클레스의 전략, 제2차 포에니전쟁시 파비우스의 전략, 그리고 냉전기 핀란드의 전략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국경선 밖에서 적의 공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완충지대전략”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은 프랑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라인랜드(Rheinland) 지역을 비무장화함으로써 완충지대를 설정하였다.²¹⁾ 또한 소련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유사시 완충지대로 활용하였다. 셋째는 “선제공격(전략적 기습)”으로서 장차 이루어질 수 있는 적과의 결전을 현재로 앞당김으로서 미래의 결전을 회피하는 것

17) 제1차 세계대전시의 참호전, 엘 알라메인에서의 몽고메리의 전략, 1941-43의 독일의 잠수함전, 1951-52의 리지웨이의 한반도 공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8) Edward N. Luttwak, pp. 108-109.

19) Andre Beaufré, *An Introduction to Strategy*, trans. B.H. Liddell Hart (London: Faber and Faber, 1965), p. 113.

20)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23-66.

21) William Keylor,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116-117.

이다. 러일전쟁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²²⁾ 앞의 두 가지가 결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선제공격은 결전을 앞당기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군사전략이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토의 변화를 수반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²³⁾

2. 모택동의 중국혁명전쟁전략: 지구전과 공간회피전략

흔히 인민전쟁과 지구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인민전쟁은 적의 공격시 전 인민이 일치 단결하여 광범위한 저항을 펼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국가수준의 전략, 즉 대전략이다.²⁴⁾ 지구전 전략은 그 하위전략인 군사전략으로서 중국의 광활한 영토와 험준한 지형, 그리고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이용하여 적과의 결전을 회피하고 궁극적으로 피아 역량의 변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즉 인민전쟁은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전쟁의 삼위일체(trinity) 가운데 “국민”(people)의 개념이 강조된 것으로 “정부”(government)와 “군”(military)이 허약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수행해야 하는 중국혁명전쟁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인민”의 지원에

22) 한편, 전략적 기습은 궁극적으로 결전을 통해 승리를 획득하기보다는 적으로 하여금 미래에 결정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제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전략적 기습은 경고 또는 전방방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초반에 기습을 통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도 더 이상의 전과확대는 자제된다. 기습이 성공하였다고 해서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자칫 전쟁이 지연됨으로서 중국에는 기습을 당한 국가로부터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습은 종종 “의지의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전의지를 분쇄하기 위한 기습공격이었다. 이스라엘은 방어중심이 깊지 않고 양면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취약점으로 인해 기습공격을 선호하였지만 최초 기습의 성공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자제하였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도 비록 기습으로 시작되었지만 대미 선전포고 없이 “항미원조”라는 명분만을 내세웠으며, 그들의 군대를 “인민의용군”으로 칭함으로써 전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현저하게 군사적으로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대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제1, 2장 참조. 폴은 주장하기를 약한 국가가 단기전을 통해 제한된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때 그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쟁을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p. 13 참조. 또한 제한된 목표와 기습에 관해서는 John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pp. 53-58 참조.

23) 완충지대 전략은 군사전략보다는 대전략에 가깝다. 그러나 완충지대를 확보함으로써 군사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전쟁 발발시 완충지대를 전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24) Gerald Segal and William Tow, *Chinese Defense Policy*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제1장 참조.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한 전략방침이었다. 반면 지구전 전략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작전개념이었다.

지구전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는 전략적 방어의 단계로서 적이 전략적 공격을 하고 아군은 점령지역을 포기한 채 후퇴하면서 시간을 버는 단계이다. “전략적 퇴각은 열세한 군대가 우세한 군대의 공격을 맞아, 그 공격을 신속히 격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였다가 시기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의 계획적인 전략적 조치이다.”²⁵⁾ 모택동은 “전략적으로 수세일 경우 통상적으로 우선 불리한 결전을 피하고 정황이 유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결전할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제2단계는 전략적 대치단계로서 적이 전략적 방어를 하고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제1단계의 말기에 이르면 적은 자체병력의 부족과 아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전략적 공격의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적은 공격을 중지하고 점령지역을 수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적은 전과확대보다는 이미 점령한 지역 가운데 전략적 요충지나 거점을 확보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이 때, 아군은 확실하게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적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으며, 유격대의 역량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적을 소멸시킨다.²⁶⁾ 그리고 제3단계는 피아 전투력의 균형이 유리하게 되었을 때 적과 결전을 감행하는 단계이다.

지구전 전략은 군사전략으로서 공간회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택동의 지구전론은 피아 전투력의 계산, 즉 “승리가능성”에 근거한다.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시 그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적과 대결하여야 했다. 문제는 적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강화시킴으로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클라우제비츠에 정통한 그는 궁극적인 중력의 중심이 영토가 아닌 병력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어를 통해 적과의 결전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적의 공격은 언젠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공간을 내줌으로서 적이 추구하는 결전을 회피하였고 중국혁명전쟁의 승리를 통해 “결전의 회피”가 “방어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보여주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은 모택동의 지구전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사례였다. 군사적으로 강한 적에 대항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전략적 반격으로 전환하여 승리를 거두는 과정은 “약자의 승리”라고 하는 “전략의 패러독스” 그

25)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SW, vol. 1, p. 211.

26)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Guerrilla War against Japan," SW, vol. 2, p. 106.

자체였다.

중일전쟁의 제1단계는 중국 북부와 중앙에 대한 일본의 광범위한 공격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달 이내에 중국을 석권한다는 목표 아래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중국의 주요 도시와 연해안지방을 점령하였다.²⁷⁾ 1937년에는 화북, 산서, 상해, 남경을 점령하였고, 1938년 10월에는 국민당 정부의 전시수도였던 무한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일본군의 신속한 진격과 대도시의 점령이 가능하였던 것은 중국의 전략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낙천(洛川)에서 회의를 열고 작전지침을 마련하였다. 당 중앙은 지구전의 전략개념에 의거하여 “군의 기본 임무를 근거지 건립... 홍군의 보존과 확대”에 두었다. 이에 따라 승리가 가능할 때만 전투를 지속하고 패전시에는 즉각 퇴각하며, 산간지방에서 유격전을 수행한다는 작전방침을 세웠다.²⁸⁾ 항일전쟁의 전략에 관해서 장개석도 중국공산당의 지구전 전략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장개석과 그의 전략 참모 백송희(白崇禧)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얻는 초토화전략을 구사하되, 소규모의 전술적 승리를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한다는 전략을 구상하였다.²⁹⁾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자신하여 칸내(Canne) 스타일의 섬멸전을 추구하는 일본의 전략에 대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파비우스와 같이 “공간회피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과 직접적이고 값비싼 희생이 요구되는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중국의 주 전투력을 보존하고 일본을 중국의 광활한 내륙지역으로 끌어들이 적의 측면과 후방에서 유격전과 운동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비록 중일전쟁이 제2차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열강들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초전에 눈부신 전과를 올렸던 일본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은 지구전을 선택한 중국의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중국내전에서도 모택동은 지구전 전략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 1946년 6월 26일 국공내전이 개시되었을 때 공산당의 전략은 항일전쟁 당시의 전략과 하등 차이가 없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병력은 각각 430만과 128만으로 국민당이 월등히 유리하였으며, 국민당은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장개석의 최우선적 군사목표는

27) Frederick F. Liu, *A Military History of Modern China, 1924-1949*, p. 197.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북평을 점령하였을 때, 도쿄에서는 전쟁장관 수기야마(Sugiyama) 장군이 히로히토(Hirohito) 천황에게 중일전쟁은 한달 이내에 종결될 것이며 일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보고하고 있었다.

28) 국방군사연구소, 『중국인민해방군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103-104.

29) Frederick F. Liu, pp. 104-106.

도시를 탈취하는데 있었다. 그 후 주요지점과 철도망을 통해 국민당 군은 주요 도시 주변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초기 국민당 군은 총체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그리고 모택동은 이미 10년전 그가 제시한 지구전 전략을 적용하였다.³⁰⁾

모택동은 지구전의 제1단계인 전략적 방어 단계로 돌입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점령하고 있던 도시를 포기하면서 퇴각하였다.³¹⁾ 모택동은 시간을 얻기 위해 공간을, 그리고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를 내주었다. 홍군은 국민당 군대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으며,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전략적 퇴각을 단행하였다. 내전의 첫째 국민당은 눈부신 진격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산당의 군사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³²⁾ 마샬은 1946년 10월 28일 장개석과 현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산당은 도시를 잃고 있지만 군대는 잃지 않고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도 멈추거나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택동의 전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³³⁾

중국공산당이 그들의 수도인 연안을 포기한 것은 적과의 결전을 회피하기 위한 모택동전략의 단면을 보여준다. 공산당의 지휘관이었던 진위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³⁴⁾

정통 군사정책에 의하면 공산당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오직 장개석 군대를 어느 정도 섬멸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도시공격과 점령으로 국민당 군대는 병참선과 보급선이 과도하게 신장되었다. 또한 점령지역과 병참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병력을 무의미하게 놀리는 꼴이 되었다. 국민당은 이제 탈취한 도시와 병참선의 방어에 더 치중하게 됨으로서 공격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대로 방어의 강함이 입증된 셈이다. 물

30) Edward L. Katzenbach, Jr. and Gene Z. Hanrahan,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Mao Tse-tung,”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LXX, Sep. 1955, no. 3, p. 334.

31) Mao Tse-tung, “Smash Chiang Kai-shek’s Offensive by a War of Self-Defense,”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IV, p. 89.

32) Edward L. Katzenbach, Jr. and Gene Z. Hanrahan, p. 333.

33) Edwin P. Hoyt, *The Day the Chinese Attacked: The Story of the Failure of America’s China Policy*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 1990), p. 43.

34) Edward L. Katzenbach, Jr. and Gene Z. Hanrahan, p. 333에서 재인용.

론 이러한 결과는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공격에 대해 맞서 싸웠다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었다.

방어는 공격보다 강한 형태의 전쟁이다. 그러나 방어가 강한 것은 방자가 결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모택동의 중국혁명전쟁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적과의 결전 회피가 방어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³⁵⁾ 그러나 최소한 결전의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방어에 성공할 수 없다. 모택동 전략의 본질은 결전의 회피에 있다.

III. 신생중국의 군사전략

신생중국의 대미전략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중소동맹이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적의 위협에 대해 모택동은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대처하려 하였다. 다른 하나는 주변국에 대한 혁명지원이다. 그러나 인도차이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택동의 혁명지원 의도는 “완충지대”를 확보하는데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차 미국과의 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구도는 한국전쟁 개입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 신생 중국의 위협인식: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중국내전 과정에서부터 모택동은 장차 중미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었다. 중간지대론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택동은 1946년 8월 미국인 기자 스트롱(A. Strong)과 가진 회견에서 현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대치하고 있으나,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 국가, 반식민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중간지대”에 의해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³⁶⁾ 따라서,

35) Jamel Ostwald, "The 'Decisive' Battle of Ramillies, 1706: Prerequisites for Decisiveness in Early Modern Warfar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3, no. 3, July 2000, pp. 649-677. 결전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pp. 665-670 참조. 결전은 양측이 원할 때만 가능하며 한 측이 용하지 않으면 결전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p. 665 참조.

36) Mao Tse-tung, "Talks with the American Correspondent Anna Louise Strong," *SW*, vol. 4, p. 99.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지대의 국가들을 먼저 굴복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중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최우선적 목표는 바로 중국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을 점령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를 장악할 수 있고, 그 후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미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되었다. 모택동에게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에 참여”하여 국민당을 돕고 있는 국가였다. 그는 1949년 8월 “잘 가시오, 레이튼 스투어트!”(Farewell, Leighton Stuart!)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³⁷⁾ 미 해군은 청도, 상해, 대만에 기지를 두었으며, 미 육군은 북평, 천진, 당산, 진황도, 청도, 상해, 남경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 공군은 중국영공을 장악하여 내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특히 미국 공군은 장개석 군대를 수송한 것 외에도 중국공산당의 순양함 중경호를 침몰시켰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미국군이 내전에 직접 참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미국이 중국내전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은 트루먼·마셜이 중국에 대한 침략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제적 상황과 중국의 상황 때문이었다. 국민당은 항일전쟁 이전에 약 10년에 걸쳐 공산당을 격멸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항일전쟁 후 국민당의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장개석을 내세워 중국민족끼리 싸우도록 한 다음 중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이 모택동의 주장이다. 문제는 중국의 혁명을 막으려는 트루먼의 의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중국에 대한 무력개입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이었다.

내전이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모택동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초 모택동은 러시아측에 경고하기를 “미국은 일본, 국민당과 군사동맹을 계획하고 있으며, 300만명의 병력을 동북지역에 상륙시키려 하고 있고, 만주, 극동지역, 시베리아 지역에 선정된 표적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⁸⁾ 이러한 우려는 중국의 혁명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미 1918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였으며, 과거 중국에서 일어났던 1900년의 의화단 사건, 1850-64년의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도 개입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장악함으로써 아시아를 장악할 수

37) Mao Tse-tung, "Farewell, Leighton Stuart!," *SW*, vol. 4, pp. 434-435.

38)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64.

있으며, 나아가 유럽에 전력을 투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혁명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모택동의 판단이었다.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중국공산당이 대도시를 점령하면서 외국의 외교관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모택동은 과거 열강들이 중국에 대한 군사개입의 구실로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웠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1948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였다.³⁹⁾ 그것은 공산당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툰 외교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대우, 상해, 사고를 일으켜 해당 국가로 하여금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모택동은 미국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자칫 미국인에 대한 잘못된 처리는 직접적인 군사대결로 나아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49년 4월 인민해방군이 양자강을 도하할 무렵 모택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공동으로 중국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북부나 동부 지역에서 국민당 군대와 함께 상륙하여 후방을 타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양자강을 따라 서쪽으로 진격하게 될 제2야전군의 작전을 보류시키고 대신 동부지역에서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제3야전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미국의 개입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이 상해와 복주 그리고 청도를 점령하게 되면 미국의 개입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때에 가서야 제2야전군은 비로소 서쪽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⁰⁾

중국의 대미적대감은 중소동맹 이후에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1950년 3월 20일 주은래는 외무부 간부들에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유럽에서 제국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점,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국민을 기만하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¹⁾ 1950년 중반, 직접적인 군사개입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여전히 미국을 중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소조약으로 중국의

39) "Instruction, Central Committee, 'How to Treat Foreigners in China,' 7 February 1948,"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 edited by Shuguang Zhang and Jian Chen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pp. 85-87.

40) "Instruction, CCP Central Military Commission, 'Military Deployment Plans for Advancing on the Whole Country,' 23 May 1949," *CCFP*, pp. 113-114.

41) "Speech, Zhou Enlai,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Our Diplomatic Affairs after the Signing of the Sino-Soviet Alliance Treaty,' 20 March 1950," *CCFP*, pp. 144-145.

안보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모택동은 미국이 국내 반혁명세력을 조종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믿었다. 대만과 티베트의 해방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당의 잔당들이 비밀기관과 첩자를 운용하여 대중들 사이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당과 정부요인들에 대해 암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택동은 국민당 잔당, 비밀기관, 첩자들의 배후에 미국 제국주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믿었다.⁴²⁾ 그는 제7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기 연설에서 이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⁴³⁾

미국의 내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중미대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내부위협보다도 외부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도록 하였다. 즉 외부의 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부의 잠재적인 적과 연합하여 이에 우선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전정”에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정부의 성격은 “인민민주 전정”으로서 노동자와 농민이 연합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 정부형태로서 민주적 부르주아계급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정파를 수용한다는 데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즉 모택동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적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면 부르주아 계층까지도 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왜 모택동은 민족 부르주아 계층을 포함시키면서 이들과 지속적인 타협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 즉 미국의 위협에 기인한다. 모택동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외부위협과 내부위협으로 구분하였다.⁴⁴⁾ 내부위협이란 인민민주 전정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계층 간에 나타나게 될 모순과 대립을 의미한다. 외부위협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중국혁명을 방해하고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하려는 위협이다. 그런데 내부위협은 외부위협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자가 중국 내부의 혼란과 분규를 가져온다면 후자는 중국의 생존과 운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택동은 외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것이 민족부르주아 세력을 포용하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포용이 계속되지 않으면 이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설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타협과 단결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모택동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은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2) Mao Tse-tung, "Fight for a Fundamental Turn for the Better in the Nation's Financial," SW, vol. 5, pp. 26-27.

43) Mao Tse-tung, "Don't Hit Out in All Directions," SW, vol. 5, p. 34.

44) "Memorandum, Liu Shaoqi to Stalin (based on Shi Zhe's memoirs), 4 July, 1949," CCFP, pp. 118-122.

2. 본토방어전략: 소련과 함께 하는 인민전쟁

중국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주변지역에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다.⁴⁵⁾ 이때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소련과의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동맹은 약자의 입장에서 보다 강한 적에 대해 쉽게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⁴⁶⁾ 모택동은 신생중국 수립 후 국가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약 2개월 동안이나 북경을 떠나 모스크바에 체류할 정도로 소련과의 동맹에 매우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중소동맹을 통해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본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동맹의 핵심은 중국의 안보에 있었다. 모택동은 중소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맹조약의 기본 정신은 일본과 그 동맹의 중국침략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은래에게 명확하게 지시한 바 있다.⁴⁷⁾ 이에 따라 주은래는 협상과정에서 중소조약을 통해 굳건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은래는 조약에 만일 한 편이 제3국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면 다른 한편은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지원을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음에 소련측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은래의 노력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조약은 상호군사공약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중소 우호, 동맹, 상호지원 조약”의 제1항에 의하면 양국은 어느 한 측이 일본 또는 그 동맹국(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측은 전력을 다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⁴⁹⁾

4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94.

46) 모택동의 전략에서 동맹 또는 통일전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모택동은 반봉건을 위해 계급연합을, 반제국주의를 위해 국제적 통일전선을 제창한바 있다. 특히 항일전쟁 기간에는 일본을 적으로 하는 소련, 미국, 영국의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47) "Telegram: Mao to CCP Central Committee, January 2 1950," *CCFP*, p. 132.

48) Zhang Shuguang, "Threat Perception and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ed., Melvyn P. Leffler and David S. Painter, *Origins of the Cold War: An Interpretive History* (New York: Routledge, 1994), p. 283; Chen Jian, *Working Paper #1: The Sino-Soviet Alliance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CWHHP.

49)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Feb. 14, 1950," Sergie N. Goncharov, John W. Lewis,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260.

여순항에 소련군의 주둔을 허용한 것은 모택동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⁰⁾ 당시 스탈린의 입장은 중소간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소련은 여순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중국군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싸우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함으로서 소련군의 주둔을 희망하였다. 소련의 중국내 주둔은 비록 그 규모가 제한된 것이라고 하여도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유사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중소동맹 체결을 통해 모택동이 얻은 가장 큰 소득 가운데 하나는 소련으로부터 중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⁵¹⁾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586대의 비행기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628대를 요청하였다. 3월에는 중국의 요청으로 소련방공사단이 상해, 남경, 서주지역으로 이동하여 영공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체류시 인민해방군 참모총장 섭영진이 모택동에게 중국해안 도시를 국민당의 공습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5월 초순까지 상해지역에서 5대의 국민당 항공기를 격추시킴으로서 방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련은 인민해방군의 정예화와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소련군사고문단과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949년 중반 유소기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해·공군 건설 지원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소동맹은 중국의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중소동맹이 성사됨으로서 모택동과 주은래는 공산화된 중국이 장기적인 미국의 위협에 대해 보다 강력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믿었다. 주은래는 3월 외무부 간부들에 대한 내부연설에서 중소동맹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⁵²⁾ 4월 제6차 중국인민정부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모택동은 중소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적 지위는 강화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공격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은 이미 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⁵³⁾ 당시 중국내 신문의

50)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Moscow, 10 December 1949," Talks with Mao Zedong and Zhou Enlai, 1949-53, with commentaries by Chen Jian, Vojtech Mastny, Odd Arne Westad, and Vladislav Zubok,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7.

51) Chen Jian, *Working Paper #1: The Sino-Soviet Alliance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CWIHP.

52) "Speech, Zhou Enlai,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Our Diplomatic Affairs after the Signing of the Sino-Soviet Alliance Treaty,' 20 March 1950," *CCFP*, p. 144.

53) "Report, Mao Zedong, At the Sixth Sess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Council, 11

한 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소련 군대는 현대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무기와 기술을 갖추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소련군대에 의해 완전히 격멸될 것이다. 중국군대의 강화된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전연 가망이 없게 될 것이다.”⁵⁴⁾

대전략적 측면에서 중소동맹은 “소련과 함께 하는 인민전쟁”(People’s war with the USSR)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소련과 함께 하는 지구전” 또는 “소련의 군사적 지원 하에 치르는 지구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택동이 2개월간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까지 소련과의 동맹을 추구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중소동맹의 핵심은 중국 본토의 안전에 있었다. 만일 모택동이 소련과의 조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이라면 굳이 조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모택동은 신생중국의 안전을 “인민전쟁”, 군사전략적으로 “지구전”에 의존하였다. 미국의 공격시 소련의 지원을 받아 본토에서 적을 격멸시킨다는 모택동의 전략은 곧 “제한적인 공간회피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대 아시아 전략: 공산혁명전략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에 걸쳐 “미국의 위협”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그 위협은 이제 내전 개입이라는 즉각적인 위협보다는 아시아 혁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장기적인 위협이었다. 특히 중소동맹 체결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기존에 가졌던 본토 방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장기적 중미대결이라는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중국혁명은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민족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의 모델을 따를 것이며 장차 범아시아적인 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동세력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혁명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모택동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혁명을 지원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간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대만, 인도차이나, 그리고 한반도는 이러한 불씨를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pril 1950,” *CCFP*, p. 148.

54) John Gittings,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 128에서 재인용.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대만이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정통성을 가진 합법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국민당 정권을 제거하여야만 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첫째 미국이 대만을 도약대(Springboard)로 삼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둘째 국민당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전열을 갖추어 본토 수복을 노릴 수 있었다. 따라서 대만 해방은 1949년 중반부터 중국공산당의 최고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이 되었다. 1949년 6월 14일 모택동은 제3야전군 지휘관들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즉각 대만을 탈취하는 문제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건의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⁵⁾ 모택동은 또한 대만 해방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만은 장차 미국의 중국 본토 침공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며 상해를 비롯한 해안도시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만의 해방은 중국으로서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대만에 대한 공격은 즉각 이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필요한 해군과 공군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나 1949년 중반 모택동은 대만해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내전의 패배로 국민당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당시로서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⁵⁷⁾ 이에 따라 인민해방군은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내전을 통하여 국민당과 치른 전투 가운데 유례없이 참담한 실패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모택동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만공격을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대만해방은 소련의 지원하에 해군과 공군력의 증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택동은 대만통일에 실패한 이후 미국이 대만을 점령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선언에 대한 모택동의 반응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1월 17일 몰로토프와 비신스키는 중소조약 체결을 위해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던 모택동을 방문하여 애치슨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 때 모택동은 애치슨이 주장한 내용은 조작이며 중소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한 뒤 애치슨의 비방적인 성명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일종의 연막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⁵⁸⁾ 몰로토프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모

55) "Telegram, CCP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o Su Yu and Others, 14 June 1949," CCFP, p. 117.

56) Michael Hunt, p. 457.

57)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98.

택동이 대만이 미국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해방의 실패와 그로 인한 미국의 대만점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베트남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대만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 이상 중국으로서는 양면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⁵⁹⁾ 즉 대만을 도약대(Springboard)로 삼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인도차이나 또는 한반도를 통해 동시공격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인도차이나와 한반도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구축하여야 했다. 그런데 당시 한반도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북한정권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매우 취약했던 인도차이나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모택동은 인도차이나에서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호지명을 지원함으로써 본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⁶⁰⁾

호치민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데 대한 기존의 시각은 주로 대중의 지원과 테러 정책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측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조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지원은 호치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드러났다.⁶¹⁾ 중국은 1950년 3월부터 9월까지 14,000정의 소총, 1,700정의 기관총, 약 150문의 화포를 지원하였고, 2,800톤의 곡물, 막대한 양의 탄약, 약품, 군복과 통신장비를 제공하였다. 그 해 4월, 중국은 베트남 공산당에 중국군사고문단(CMAG)을 파견하였고, 군사학교를 설립해 주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중국은 베트남의 군사전략 뿐 아니라 군 구조개혁, 작전계획, 전술적 측면에까지 매우 깊숙히 간여하였다.⁶²⁾ 군사고문단을 통해 거의 모든 전역의 작전을 통제하는가 하면, 중국혁명에서 적용된 지구전 개념을 실 작전에 적용시켰다. 1952

58) "Conversation, V.M. Molotov and A.Y. Vyshinsky with Mao Zedong, Moscow, 17 January 1950," Translated Russian and Chinese Documents on Mao Zedong's Visit to Moscow, December 1949 - February 1950, *CWIHP*.

59) 양면전쟁에 관해서는 Thomas Christensen, "Threats, Assurances, and the Last Chance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1, Summer 1992, p. 136. 대만과 한반도를 연계한 양면전쟁에 관한 중국군사지도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시성문, 조용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판문점 담판」, 윤영무 옮김 (서울: 한백사, 1991), p. 95; 홍학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 (서울: 고려원, 1992), pp. 34-35.

60) Douglas J. Macdonald, "Communist Bloc Expansion in the Early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1995/96, p. 182. 1949년 중국의 혁명이 완성되어갈 무렵 인도차이나에서 공산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61) Qiang Zhai, "Transplanting the Chinese Model: Chinese Military Advisers and the First Vietnam War, 1950-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no. 57, October 1993, p. 689-715; Douglas J. Macdonald, "Communist Bloc Expansion in the Early Cold War," pp. 181-185.

62) Qiang Zhai, pp. 704-713.

년에는 호치민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여 대전략적 차원의 기동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 전쟁은 중국이 아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중국의 인도차이나 혁명지원은 “아시아 혁명”보다 중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1950년 초반 주은래와 유소기는 호치민에게 강조하기를 프랑스에 대항하여 전개하고 있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부라고 하였다. 즉 중국은 한반도, 대만, 인도차이나 세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인도차이나는 이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투쟁의 성격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혁명에 있을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주변에 완충지대를 확보하여 본토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당장 베트남이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중국의 남쪽 국경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⁶³⁾

무엇보다도 1954년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군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뒤 제네바 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협상태도는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이익이 “혁명”이 아닌 “안보”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네바 회의에서 베트남은 즉각 휴전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타협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중국은 서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베트남을 두 지역으로 분리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하였다. 호지명의 거부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주은래는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양보를 받아내려 하였다. 호지명은 베트남 분리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중국과 함께 16도선을 분리선으로 할 것을 서구에 제안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의 수상은 자신의 직위를 걸고 있다며 17도선을 분리선으로 할 것을 고집하였다. 중국으로서는 16도선이나 17도선이나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완충지대로 작용할 북베트남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이는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었다.⁶⁴⁾ 주은래는 17도선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는 차후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갈등의 불씨로 남게 되었다. 결국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중국으로서는 오직 서구와의 타협으로서 전쟁을 종식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베트남의 통일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이다.

6월 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한국전쟁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한국,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극동에 대한 미국의 공격음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⁶⁵⁾ 예상과 달리 미국이 한국전쟁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대만해협을 중립화하자 모택동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도차

63) Zhang Shuguang, "Threat Perception," p. 286.

64) Chen Jian, "China and the First Indo-China War, 1950-54," p. 110.

65) Chen Jian, "China and the First Indo-China War, 1950-54," p. 91.

이나 지역에 최소한의 완충지대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6월 27일 중국군 사고문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모택동은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국제주의자의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강조하였으며, 유소기는 그들의 임무가 실패하여 적이 베트남에 주둔하게 될 경우 중국의 안보에 큰 어려움과 곤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⁶⁶⁾ 또한 중국지도부는 8월 19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이 한국전쟁 못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⁷⁾

한국전쟁이 북한측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모택동은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미국은 1949년 바오 다이(Bao Dai) 정부를 인정하였으며 1950년 5월에는 프랑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택동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1950년 9월 모택동은 강서 지역의 군사지휘관 등지휘(Deng Zihui)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베트남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국민당 잔당을 추격할 경우에도 국경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다. 국경전역에서 호치민이 큰 승리를 거둔 후 10월 27일부터 열린 베트남 지도부의 회의석상에서 중국군사고문단의 선임고문 첸 쟁(Chen Geng)은 승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의 개입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베트남에서의 혁명세력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에서와 같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과 함께 양면전쟁을 치러야 할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1952년 7월 11일 베트남이 중국의 병력지원을 요구하였을 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베트남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단지 국경지역에 한하여 병력을 증강시켜 배치할 것임을 통보하고, 베트남 스스로 혁명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⁶⁹⁾ 베트남에 병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서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모택동의 대미 군사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었으며 장기적으로 주변국에 완충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장차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의 결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의 이러한 전략은 미리 여유공간을 확보하려는 “완충지대 확보전략”으로서 그의 사상에 나타난 “강자와의 결전회피”라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6) Chen Jian, "China and the First Indo-China War, 1950-54," p. 92;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132.

67) 「무르익는 중공개입」, 『조선일보』, 1994. 7. 25.

68) Qiang Zhai, p. 706.

69) Qiang Zhai, p. 706.

IV. 한국전쟁 개입결정과 모택동의 군사전략 구상

1. 김일성의 남침계획 동의

모택동의 대미전략이 결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왜 모택동은 1950년 5월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동의하였는가? 한반도에 이미 완충지대가 확보되어 있고 당장 인도차이나에서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 왜 모택동은 김일성의 남침에 동의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열어놓았는가? 모택동의 동의는 그의 전략적 구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택동의 그러한 결정은 미국과의 결전을 불사한다거나 한반도 공산화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군사적 낙관주의(military optimism)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⁷⁰⁾ 즉 군사적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전쟁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가진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 문제가 중국과 북한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남침을 미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5월 13일 북경에 도착하여 모택동에게 스탈린과의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스탈린이 최종결정은 모택동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음을 설명하였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키지 않는 동의”였다.⁷¹⁾ 이미 모택동은 1949년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혁명이 완수된 후에 하도록 권유한 바 있었다. 그것은 대만의 통일을 우선 완료한 후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중국은 티벳문제, 경제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미국과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비록 모택동이 미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파병하여 돕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한다던가 한반도의 공산화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중국은 인도차이나에서 호지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대만의 통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불가능하였다. 한반도에서 모택동의 관심이 오직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김일성의 남침계획은 모택동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70) 블레이니는 전쟁의 원인으로서 “극단적 낙관주의”(extreme optimism)를 지적하고 있다.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88), pp. 120-124.

7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서울: 나남, 1997), pp. 249-255.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의 남침동의는 군사적 낙관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모택동의 우려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손쉬운” 승리의 가능성에 의해 상쇄되었다. 첫째, 당사자인 김일성이 한반도 공산화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둘째,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였으며 설사 개입하더라도 그 이전에 한반도 공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소련이 대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군사작전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침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넷째, 스탈린이 김일성의 계획을 이미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모택동에게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등직한 후원자”가 뒤에 있다는 낙관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개입 결정 후 소련공군의 지원과 장비지원을 기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남침계획이 모택동의 전략구상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이와 같은 “낙관주의”에 사로잡힘으로서 전쟁에 동의하게 되었다.

“합리성”(rationality)을 가정한다면 방어적인 입장에서 완충지대를 확보하는데 급급했던 모택동으로서 남침 승인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카멜레온과 같은 것으로서 합리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비록 모택동이 한반도 공산화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모택동의 전략구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미국이라는 강력한 적에 비해 중국의 힘이 열세에 있는 한 미국과 결전을 회피한다는 모택동의 전략은 계속 유효하였다.

2. 한국전쟁 개입결정 과정분석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을 개시한 이후 중국은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까지 한반도 전쟁상황에 대해 군사적으로 직접 간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남침계획부터 준비, 실행에 있어서 대부분 그들의 후견국가인 소련의 지원에 의지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에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북한이 중국에 요구할 사항은 많지 않았다. 둘째,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전쟁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김일성 자신도 전선사령부와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고의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악한 통신망과 병참선의 신장 때문으로 보여진다.⁷²⁾ 셋째, 개전 초 예상 밖의 선전

72) Shen Zhu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of Mao’s 2

으로 북한이 승리를 거둬주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 나설 필요는 없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직접 김일성과 군사고문단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따라서 모택동이 간여할 여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루어진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모택동의 군사전략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6월 27일 제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해협을 중립화하기로 한 트루먼의 결정은 미국이 중국내전에 다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7함대 파견에 대해서는 단순히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켰던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시 한번 비군사적 분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 트루먼의 제7함대 파견 결정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대만해방 실패 후 모택동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모택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³⁾ 6월 30일 주은래는 인민해방군 서남군사지역 정보국장이었던 시성문을 불러 김일성과 접촉을 유지하고 전장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시성문 일행은 7월 초 북한으로 들어갔다. 또한 주은래는 7월 2일 주중 소련대사 로신에게 중국지도부가 작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 상황에 관한 평가를 소련정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것은 군사적 조언을 담은 것으로 서울 방어를 위해 인천 등 인접지역의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이 38선을 넘어올 경우 북한군으로 가장하여 전투에 참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민해방군의 부대 재배치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의 개입 후 유엔군 사령부(UNFC)가 설치된 7월 7일 모택동은 중남부지역에 위치한 제 13군단을 압록강 일대로 재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제 13군단을 동북변방군(NFDA)—나중에 중국인민지원군(CPV)의 모체가 됨—으로 재편성하고 전 15군단 사령관이었던 등화를 동북변방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7월 10일에는 “미국의 대만, 한국 침공에 대항하기 위한 인민위원회”를 북경에 설치하였다. 8월 5일과 18일에는 동북변방군에 대하여 9월말까지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8월 말, 등화는 미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을 모택동에게 제기하였으며, 9월 초에는 고강이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모택동은 9월 9일 동부지역의 제 9군으로 하여금 압록강 지역으로 전개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⁷⁴⁾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CWIHP*.

73) Chen Jian, *Working Paper #1*.

중국이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군사적 개입요청을 받은 것은 인천상륙작전 후 전세가 기울어진 급박한 상황에서였다. 스탈린은 이미 인천상륙작전이 갖는 전략적 심각성을 파악하고 9월 18일 소련군사고문단장인 바실리에프(Vasiliev)와 주 북한 대사 스티코프(Shtykov)에게 낙동강 전선의 병력을 서울 근처로 재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⁷⁵⁾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낙동강 전선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는 후방 병참선의 차단과 남한지역 병력의 고립화였다. 스탈린은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북한의 상황이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스탈린은 9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소련군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9월 30일 소집된 회의에서, 스탈린은 국제연합에 휴전 결의안 제출, 인민군 재편성, 북한에 무기 및 탄약 지원, 그리고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1일 14시 30분에 김일성으로부터 “절박한” 전문을 받은 스탈린은 불과 30분 후인 15시에 모택동에게 전문을 발송하였다. 스탈린은 여기에서 만일 가능하다면 “즉시 5개 내지 6개 사단을 38선 근처로 보내서 북한 동지들이 중국군의 보호하에 38선 이북에서 전투예비대를 재조직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⁷⁶⁾

스탈린의 전문에 대한 모택동의 반응과 관련하여, 최근 공개된 자료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1987년 중국에서 공개한 1950년 10월 2일자 모택동의 전문에는 총 36개 사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만수로프(A. Mansourov)는 이 전문이 소련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련에서 공개한 로쉬어 스탈린에게 보낸 10월 2일자 전문에는 이와 반대로 모택동이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개입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⁷⁷⁾ 이와 동시에 그는 중국에서 공개한 10월 2일자 전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74)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135-137;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vol. 121, Mar. 1990 참조.

75) "Document 3: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Matveyev(Army Gen. M. V. Zakharov) and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 F. Shtykov, approved 27 September 1950 Soviet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 Translated by Alexandre Y.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08-109. 스탈린은 이 전문에서 소련 군사고문단의 무능을 질책하면서, 인천상륙작전 이후 7일간 대책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서울지역 방위에 실패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76)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Bulletin*, Issues 6-7, p. 99.

77) *Ibid.*, pp. 94-100.

셴 지화(Shen Zihua)는 중국에서 공개한 전문은 참모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작성만 되었을 뿐 발송은 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즉, 스탈린의 전문을 받고 모택동은 즉각 개입의사를 담은 전문을 작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중국지도자들이 한국전쟁 개입에 반대함으로서 발송을 하지 못하고 보관하였다는 것이다.⁷⁸⁾

10월 1일부터 10명의 최고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된 확대 공산당 정치국 특별 회의에서 실제로 모택동은 공산당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 회의는 결말이 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모택동은 주은래, 유소기, 고강을 만나 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개입여부가 아니라 언제 누구의 지휘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거기 모인 지도자들은 10월 15일을 중국군이 행동을 개시할 날로 잠정 합의하였다. 지도자 선정 문제는 더욱 어려워 보였다. 모택동은 먼저 속유를 지목하였다가 작전의 범위가 확대되자 임표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둘은 모두 건강이 양좋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임표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모택동은 팡덕회를 추천하였고 팡덕회는 이를 수락하였다. 주은래는 10월 2일 인도 대사인 파니카(K.M. Pannikar)를 불러 만일 미국이 38선을 넘는다면 중국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⁷⁹⁾

10월 4일 확대간부회의가 소집되어 5일까지 계속되었다. 여전히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었다. 반대파는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후방방어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력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일 오후 팡덕회가 서북지역에서 날아와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이튿날에는 모택동의 개입제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한국전쟁 개입 결정은 모택동의 강력한 설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반대파에 대한 모택동의 설득은 그의 전략적 사고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위험할 때 소련이 가만있을 것이고, 결국 “국제주의[혁명]는 헛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⁸⁰⁾ 아울러 모택동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한반도가 아니라도 대만과 베트남에서 언젠가는 한 번 치러야 할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국이 이 세 방향에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이 바로 그중 하나라고 믿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이 세 지역 가운데 한곳을 미국과의 결전을 위한 장소로 선택

78) Shen Z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s," *CWIHP*.

79) 마이클 헛트는 한국전쟁 개입에 관한 두 개의 10월 2일자 전문 가운데 중국측의 문서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 논문은 셴 지화의 주장대로 소련측의 문서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80) Hao Yufan and Zhai Zhihai, p. 106.

해야 했다. 모택동은 소련 지원의 용이성과 근접성,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만과 베트남이 한반도에 비해 중국에 더욱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손에 넘어가면 중국은 약 1,000마일에 이르는 압록강 국경선을 수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으로서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현 여건이 어렵다고는 하나 한국전쟁은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었다.

모택동이 10월 2일 왜 한국전쟁 개입 불가 입장을 로선에게 흘렸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부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소련대사에게 당시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든 표명해야 했을 것이다.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당시에 소련의 미온적 태도이다. 한국전쟁 개입은 소련의 지원 없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에 한국전쟁 개입을 종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은 언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한국전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택동이 보였던 부정적인 자세는 소련의 지원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이거나 좀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취해졌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택동은 로선에게 개입 불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이 결정은 임시적이라는 것과, 스탈린과 상의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필요시 주은래와 임표를 모스크바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것은 스탈린과 모종의 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¹⁾ 또 모택동은 10월 7일 개입결정을 스탈린에게 통보하면서도 중국은 지금 당장 병력을 보낼 수 없으며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⁸²⁾

1950년 10월 8일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도록 명령하였다. 팡덕희는 셴양으로 가서 중국인민 자원군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박일유와 만나 개입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13군단에 수일내로 전투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은래는 중·소 군사협력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10일 소련으로 건너가 11일 모스크바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임표와 합류하여 스탈린을 만났다.⁸³⁾ 여기서 주은래는 중국 지상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동안 얼마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미 스탈린은 중국이 7월 초 한만국경에 9개의 사단을 배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81) Shen Zhihua.

82) Document 13: Letter, Fyn Si [Stalin] to Kim Il Sung (via Shtykov), 8[7] October 1950, in Alexandre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16-117.

83) 주은래가 소련에 건너가 스탈린을 만난 날짜, 그리고 모택동에게 결과를 통보한 날짜는 Hao Yufan과 Zhai Zhihai, 그리고 Chen Jian 간에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Hao Yufan과 Zhai Zhihai의 논문(p. 110-111)을 따르기로 한다.

동의하면서 중국군의 배치와 완료될 경우 124대의 전투기로 구성된 항공사단으로 업호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적이 있다.⁸⁴⁾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주은래의 공중지원 요청을 스탈린은 거부하였다. 그는 중국군 20개 사단에 대한 군사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소련공군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한국전쟁에 참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스탈린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은래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모택동에게 알리고, 한국전쟁 개입을 재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모택동은 팡덕회에게 모든 행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⁵⁾ 같은 날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중국이 또 다시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만주로 철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⁸⁶⁾

소련의 공군지원 불가입장은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의지를 바꾸지 못하였다. 11일부터 13일 까지 약 60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고민한 끝에 모택동은 13일 소련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팡덕회와 주은래에게 전문을 보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하였으며,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도록 하였다.⁸⁷⁾ 스탈린은 다시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이 “부족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기로 하였으니 철수를 보류하도록 지시하였다.⁸⁸⁾ 이러한 모택동의 결정에 감명을 받은 스탈린은 18일 중국으로 귀국하는 주은래를 통해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장비지원을 늘이는 한편, 차후 공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10월 14일 모택동은 팡덕회와 함께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논의하였다.⁸⁹⁾ 그들은 평양-원산 선 이북 덕천-영원 선 이남지구에서 방어선을 2중 3중으로

84) "Document 7: Ciphred Telegram, Filippov [Stalin] to Soviet Ambassador in Beijing (N.V. Roshchin) with Message for Zhou Enlai, 5 July 1950," in Alexandre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12-113.

85) 스탈린이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인천상륙작전 후 북한을 포기하려 했던 점, 10월 2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북한을 탈출하여 만주로 망명하도록 한 점, 그리고 차후 결심을 바꾸어 공군 투입시 철저히 소련 조종사들의 신분과 복장을 위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스탈린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6) Evgueni Bajanov, "Assessing the Policies of the Korean War, 1949-51," *CWIHP Bulletin*, Issues 6-7, p. 89.

87) "Doc. 75. Mao Telegram to Zhou Enlai in Moscow re the Current Status of the War, Oct. 14, 1950, 0300," "Doc. 76. Mao Telegram to Zhou Enlai in Moscow re the Plan of Attack, Oct. 14, 1950," in *Uncertain Partners*, pp. 282-284.

88) Document 20: Ciphred Telegram, Fyn Si [Stalin] to Kim Il Sung (via Stykov), 13 October 1950, in Mansourov, p. 119.

89) "Telegram to Zhou Enlai Concerning the Principles and Deployments of the People's Volunteer Army as It Enters Korea for Combat (October 14, 1950)," in Thomas J. Christensen, p. 149; Michael Hunt, p. 463; 서성문, 조용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판문점 담판」, 윤영무 옮김 (서울: 한백사, 1991), p. 110.

구축하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기지로 삼기로 하였다. 만일 6개월 이내에 적이 공격해 오면 진지 전면에서 적을 분산·섬멸시키고, 적이 평양과 원산에서 동시에 공격해 올 경우 고립되고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며, 만일 적이 공격을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 의용군도 진격을 하지 않은 채 장비교체, 훈련에 열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평양·원산에 대한 반격은 오직 공중·지상 모두에서 압도적 우세를 달성할 경우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10월 15일 김일성의 재촉에 따라 모택동은 10월 17일 개입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7일 까지도 팽덕회의 부하들은 그들의 빈약한 무기와 소련의 공군지원 부재를 이유로 개입을 꺼려하였으며 개입을 저울로 늦추거나 이듬해 봄으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⁹⁰⁾ 이에 모택동은 18일 팽덕회와 고강을 북경으로 불러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주은래로부터 소련의 지원에 대한 현황을 듣고 한국전쟁 개입 날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모택동은 신속한 미군의 진격으로 인해 북한이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주저함과 우려를 일소하고 19일을 압록강 도하일로 확정하였으며 즉각적인 행동을 지시하였다.

왜 모택동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며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하였는가? 당시 소련의 태도로 보아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의무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 그 원인은 모택동의 군사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3. 모택동의 군사전략 분석

모택동의 전략은 피아 군사력의 비교와 승리가능성에 대한 계산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모택동 자신이 승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다음과 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 첫째, 중국지도자들이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는 사실이다. 10월 1일 개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는 5일에 가서야 모택동의 설득으로 결말을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개입의사를 표명한 전문을 작성해 놓고도 보낼 수 없었다. 더구나 10월 17일 개입직전에 제기된 군부의 반발은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모택동이 이들을 설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신 역시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90) Michael Hunt, p. 463.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할 수 없었다.

둘째, 스탈린이 공군지원을 거부하였을 때 모택동은 개입준비를 중단시키고 3일간의 장고에 들어갔다. 소련의 공군이 없이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전쟁에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이도 개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은 한국전쟁에서 그가 추구하려 하였던 것이 최소한 완벽한 군사적 승리나 미국과의 결전은 아니었던 셈이다. 14일 주은래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철저하게 미군과의 전투를 피하고 오직 한국군의 주력을 겨냥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이러한 해석과 일치한다.

승리가능성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한 모택동은 방어적인 전략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지도자들이 우려하였던 것처럼 피아 전투력 격차는 너무 컸다. 스탈린이 약속한 20개 사단에 대한 장비지원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했다. 공군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론은 소련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는데 필요한 6개월 동안 평양-원산 선 북쪽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⁹¹⁾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군사전략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완충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미국과의 결전시 잠시 숨쉴 틈(breathing spell)을 갖기 위한 방어전략의 일환이었다. 모택동의 전략은 혁명지원을 통해 주변국을 완충지대화 하는 것이었다. 대만 해방이 실패함에 따라서 한반도와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는 배가되었다. 모택동은 승리가능성이 희박했던 호지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에서도 북한이 확보하였던 완충지대가 붕괴되어가자 모택동은 이를 복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엄밀하게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목적은 “완충지대 확보”가 아니라 “완충지대 복원”에 있었다.

둘째, 양면전쟁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함이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북건설과 광동성 방항에 4개군을 배치하여 미 해군이나 대만의 장개석 군대가 연해지역을 공격해 올 경우에 대비하였다.⁹²⁾ 또한 중국은 베트남 혁명을 지원하면서 미국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이러한 것은 중국이 약하나마 양면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한반도가 대만과 함께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경우 중국은 양면전쟁을 강요당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91) "Telegram to Stalin Concerning the Decision to Send Troops into Korea for Combat (October 2, 1950)," in Thomas Christensen, pp. 151-152.

92)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소,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서울: 세경사, 1991), p. 11.

도 스탈린도 지적하였듯이 한반도를 미국이 장악할 경우 대만해방이 더욱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⁹³⁾

셋째, 모택동은 한국전쟁 개입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경고하려 하였다.⁹⁴⁾ 이것은 일종의 결전 무마전략이었다.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 있었던 것이다. 선제공격은 대부분 약자의 선택이다. 약자가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 제한된 목적만을 갖는다.⁹⁵⁾ 지연·소모전으로 나갈 경우 전세는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공격은 “결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모택동은 제한적인 성공으로도 중국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고 전쟁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서 미국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⁹⁶⁾

V. 결 론

한국전쟁 개입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택동이 구상한 신생중국의 대미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전이 종식되어가면서 모택동은 미국의 내전 개입을 우려하였고, 이것은 내부위협에 대한 “외부위협 우선론”으로 나타났다. 신생중국의 당면과제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본토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었다. 중소동맹은 중국으로서 “소련과 함께 하는 인민전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기본적인 안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주변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반도, 대만, 인도차이나는 중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도약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1949년 11월 대만해방의 실패는 상대적으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킨 계기가 되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 세력이 극히 미약했던 인도차이나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혁명”이 아닌 “완충지대 확보”에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한국전쟁이 북한측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완충지대를

93) Document 13: Letter, Fyn Si [Stalin] to Kim Il Sung (via Shtykov), 8[7] October 1950, in Alexandre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16-117.

94) Michael Hunt, p. 464.

95)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13; John Mearsheimer, pp. 53-58.

96) Michael Hunt, pp. 465-467.

복원"하여야 했다. 이러한 모택동의 전략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의도하거나 결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중미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던 모택동은 미국과의 차후 결전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던 것이다.

모택동 전략의 특성은 약자의 전략으로서 강한 적과의 결전을 회피하는 데 있다. 인도차이나 전쟁과 한국전쟁에서 나타나는 모택동의 방어적 전략은 중국혁명전쟁에서 나타난 그의 전략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모택동은 미국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혁명전쟁시 일본과 국민당 군대와 결전을 회피하였던 것처럼 미국과 결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비록 한국전쟁에 개입하였지만 모택동은 “무제한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한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완충지대를 복원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미국에 경고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한국전쟁 개입후 제2차전역과 제3차전역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었다. 최초 모택동과 팡덕회는 평양-원산 선 북쪽에 방어선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이미 미군은 훨씬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모택동은 미군이 중국의 개입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과 상호 협조 없이 진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습을 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즉 제1차전역과 제2차전역에서 있었던 기습은 최초 모택동의 의도가 아니었다. 비록 이러한 기습의 성공으로 인해 제3차 전역에서 결전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한국전쟁에 개입하기로 한 모택동의 군사전략적 목표는 “결전”이 아니라 “결전의 회피”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개입에서 나타난 모택동의 전략적 계산은 강한 적과 전쟁을 할 경우 결전을 회피한다는 그의 전략사상과 일치한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전 수립되었던 신생 중국의 대미전략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